

애경, 액체세제 시장점유율 1위



애경(대표 고광현)은 액체세제인 <리큐 2배 진한겔>이 8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9월10일 발표했다.

AC닐슨 자료에 따르면, 리큐는 중성세제를 제외한 전체 액체세제 시장에서 8월 22%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다음으로 LG생활건강의 테크, 헨켈의 퍼실, CJ라이온의 비트 순이었다.

더불어 패널조사 방식인 칸타월드패널 통계에서도 리큐가 상반기 점유율 1위 자리에 올랐다고 애경은 밝혔다.

칸타월드패널 자료에서는 리큐가 상반기 21%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퍼실(17%), 테크(14%), 액츠(12%), 비트(6%) 등이 뒤를 이었다.

<화학저널 2012/09/10>